

# 아베, 큰소리 치더니 개헌발의선 확보 실패

### 기존의석 포함 160석 4석 부족 자민·공명 과반의석은 확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자민당본부 대표센터에서 당선자 이름에 장미꽃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은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개헌(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헌(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헌-비개헌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일본

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생구미'(令和新生組)는 2석을 각각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의원들에 기대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권은 과반을 확보하고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작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으나,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해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선거 전까지 참의원에서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성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 바이든, 美 민주당 대선주자 선호도 1위 CBS 여론조사서 25%...“트럼프에 승리 가능성 강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 비핵화는 '공유된 목표'라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이 치열한 가운데 여론조사에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CBS뉴스가 지난 9~18일 등록 유권자 1만8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 주자 중 바이든 전 부통령을 '1차망으로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25%로 가장 높았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20%로 2위였으며, 첫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팽팽히 맞붙어 시선을 끈 카멀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16%로 그 뒤를 이었다.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경합해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무소속·버mont) 상원의원은 15%로 4위에 그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었을 때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강점으로 지목됐다.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표를 주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의 75%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를 꼽았다.

그러나 '열정' 측면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다른 후보들 사이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을 넘는 56%의 응답자는 워런 의원이 "훨씬 더 많이" 투쟁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샌더스 의원이 그럴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54%나 됐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서 38%만이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 홍콩 '검은 행진' 반중정서...中휘장 먹칠 도심 시위 다시 열려...中 "일국양제 마지노선 건드려"

홍콩에서 범적인 인도법(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 시위가 21일 다시 열렸다. 일부 시위대는 이날 처음으로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에 몰려가 국가 상징물인 휘장에 먹칠하는 등 강한 반중 감정을 표출했다.

이에 중국 중앙정부는 심야에 긴급 성명을 내고 일부 시위대의 이런 행동이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마지노선(一國兩制)을 건드리는 행위라면서 강력한 경고음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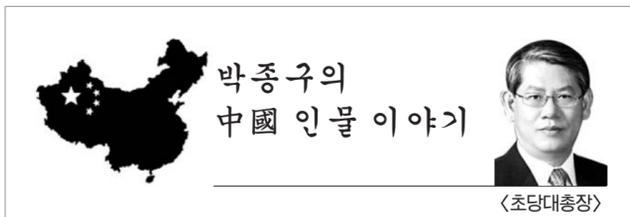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明報)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민주진영 단체들의 연합체인 민간인권전선은 주최하는 송환법 반대 시위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코즈웨이베이의 빅토리아공원 등에서 시작됐다.

이날 시위는 주최 측 추산으로 각각 103만명, 200만명, 55만명이 참여한 지난달 9일과 16일, 이날 1일 시위에 이어 열리는 대규모 도심 집회다. 대부분 검을 옷을 입은 시민들은 송환법 완전 철폐, 캐리 램 행정장관 사퇴, 경찰의 시위대 과잉 진압 조사와 처벌, 완전한 민주 선거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행진해 '검은 바다'를 방불케 했다.

민간인권전선은 이날 당초 대법원 건물 앞을 최종 목적지로 삼으려고 했지만, 경찰은 공공시설의 안전을 이유로 더 짧은 행진 경로를 택할 것을 요구했다. 빅토리아공원에서 플레이그라운드까지 이어진 집회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일부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도로를 점거한 채 대법원 청사와 정부 청사 방향까지 나아가면서 해산에 나선 경찰과 시위대가 곳곳에서 충돌해 부상자도 속출했다. 시위대는 경찰에 벽돌 등 물건을 던지면서 맞섰고 방독면과 헬멧, 방패로 무장한 경찰은 최소 수십명의 최루탄을 쏘면서 진압에 나섰다.

특히 시위대 중 일부는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관공실 앞까지 가 중국 중앙정부를 상징하는 붉은 휘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고 날개관을 던지는 등 강한 반중국 정서를 드러내기도 했다. 시위대는 연락관공실 청사를 둘러싼 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반중국 구호와 욕설 등을 써 놓았다.

전례 없는 중국 정부 기관을 향한 공격에 중국 중앙정부는 즉각 시위대를 강력히 비난했다. /연합뉴스



박종우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90> 이육

이육(李煜, 937~978)의 자는 중광(重光)으로 현 장쑤성 쉬저우에 해당하는 팽성 출신이다. 오대십국 시대 남당의 마지막 황제로 사서에서는 망국의 불운한 시인으로 평가된다.

남당의 두 번째 황제인 이경의 여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한쪽 눈에 동공이 두 개라 자를 중광으로 지었다고 한다. 일찍부터 시와 음악에 조예가 깊고 문헌태자 흥기가 그의 재질을 질투해 어려서부터 마음고생이 많았다. 골육상쟁을 피하기 위해 더욱 예술에 몰두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제위에 오르게 되었다. 역사상 남당의 후주(後主)로 불리우는데 중원을 장악한 북송에 조공을 바치며 왕조의 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필에 정심당(澄心堂)을 지어 문학 공간으로 활용했다. 부인에게 전족을 하는 악습도 이육이 궁녀에게 행한 것이 최초라는 설도 전해진다. 점령한 송나라 군대가 궁녀들을 불러 모으자 등불의 연기가 맴다고 해 밤에 궁전을 어떻게 밝혔는지 물어보니 커다란 보주(寶珠)를 매달아 밝혔다고 한다. 조정의 사치가 왕조를 멸망으로 내린 것이다. 이육은 아환과 여영의 자매를 총애했다. 비파 연주에 뛰어난 아환을 961년 천재적 연어 감각을 보유했다. 친형인 문헌태자 흥기가 그의 재질을 질투해 어려서부터 마음고생이 많았다. 골육상쟁을 피하기 위해 더욱 예술에 몰두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제위에 오르게 되었다. 역사상 남당의 후주(後主)로 불리우는데 중원을 장악한 북송에 조공을 바치며 왕조의 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 오대십국 시대 남당의 마지막 황제

북송의 태조 조광윤은 천하통일의 대업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971년 남당의 남쪽을 있는 남한을 멸하고 남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971년 국호를 강남(江南)으로 바꾸고 중서성, 문화성을 좌내사부, 우내사부로 바꾸었다. 왕이만 작위도 공(公)으로 바꾸었다. 북송에 정벌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 974년 태조는 그에게 입궐하라는 명을 하달했다. 와병중인 이육은 입궐할 수 없었고 태조는 이를 구실로 남당을 공격했다. 수도 금릉(현 남경)을 포위한지 10개월만에 남당이 투항해 3대에만 멸망하였다. 가족 45명을 이끌고 북송의 수도 카이펑으로 올라가 위명후라는 작위를 하사받았다. 이때부터 포로의 삶이 시작되었다. 남당은 건국 38년만에 망했는데 수도 금릉은 호화로운 궁전과 저택이 즐비하였다. 예술에 빠져 국방을 게을리한 왕조의 예정된 최후가 아닐 수 없다. 송나라 군대는 조빈과 반미를 총대장으로 해 수로와 육로로 금릉을 공격했다. 양자강에 이르자 3일만에 부교를 만들어 도강해 성을 함락시켰다. 이육과 남당의 조정신료들은 부교로 양자강을 건널 수 있다는 사신을 외면한 채 연회에 몰두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그는 정사를 소홀히 하고 음주가무와 시작활동에 모든 공을 기울였다. 궁

개봉의 생활은 옛 궁녀에게 보낸 '여기서는 아침저녁으로 눈물로 세수한다'는 편지 구절처럼 고통스러웠다. 특히 태조 조광윤의 즉위하면서 훨씬 힘 들어졌다. 여영을 총애했던 태종은 빈번히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그때마다 여영은 그를 원망했다고 한다. 그의 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태종의 질투심이 심해졌다. 978년 칠월 칠석 이육이 형제들과 42살 생일을 축하했는데 고국의 땅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다는 기녀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종은 이를 듣고 노해 사약을 내렸다고 한다.

그의 절명시 우미인(虞美人)에는 "밝은 달 아래 고국의 땅을 생각하니 차마 견딜 수 없어라(故國不堪回首月明中)"라는 구절이 있다. 견기독이라는 독약을 먹고 죽었는데 고통으로 몸이 구부러져 머리와 발이 서로 붙을 정도였다. 몇 달 후 여영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따뜻한 심성을 가진 예인(藝人)이었다. 백성에 대한 애정이 깊고 시와 문학을 사랑한 다정다감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남세는 이육과 같은 우유부단한 인물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직을 지키지 못한 패주(敗主)에 불과했다. 북송의 소동파는 "망국의 군주로서 마땅히 백성 앞에 나가 사죄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